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인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성령강림절후 제20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57. 즐겁게 안식할 날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주님, 가을 산을 물들이고 있는 오색 단풍은 온몸으로 받아온 빛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형용할 수 있는 언어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만 찬탄하고 기뻐할 뿐입니다. 살면서 경험하는 아픔과 슬픔, 외로움과 비애까지도 주님의 현존 앞에서 빛으로 변합니다. 주님, 하찮아 보이는 생의 여러 순간도 주님께서 베푸신 선물임을 알아차리는 영적 분별력을 주십시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했습니다. 가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두려움을 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 속에 빠져 들어가던 베드로처럼 당황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주님과의 친밀한 사귀를 통해 생명의 기운을 공급받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롬3:23-24	인도자
♠ 교 독 문	21. 시편95편	다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대표기도	I. 김태환 선생 II. 한상의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송	342. 어려운 일 당할 때	다함께
성경봉독	I. 고후6:1-13	인도자
	II. 창14:18-24	이영란 집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하나님의 일꾼	장영숙 전도사
	II. 매이지 않는 자유	김기석 목 사
거듭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437. 주 나의 목자 되시니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1)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고통 당하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위해 일어설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될 것입니다. 힘써 주님의 손과 발이 되십시오.

다함께 : 아멘. 이제는 우리 삶의 영원한 쫓대이신 주님을 향해 똑바로 걷고 싶습니다. 인생의 고삐길을 지나느라 숨을 헐떡이는 이들 곁에 다가가 그들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시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흠날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레위기 강해(16)/김재흥 목사	성서의 평화(7)/김기석 목사
기도 : 유경순 집사	기도 : 김명희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김재흥 목사	조관행 집사 장영숙 전도사	인도자 이증자 집사

10월	영접위원	구성실	김중수	박범희	이순정	최숙화	박미영
	헌금위원	한완식	박창운	하현철	유영남	박혜경	박홍재

여덟 가지 악에 관해서 4

탐욕에 관하여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까지 탐욕은 우리의 본성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악에서 파생된 것이며 우리의 자유의지를 왜곡되게 사용한 데서 생겨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덕의 길을 출발점에 선 영혼이 미지근하고 믿음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면, 탐욕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럴 듯한 이유들을 제시합니다. 탐욕은 수도사로 하여금 자신의 늙고 병든 모습을 상상하게 하고, 수도원에서 제공하는 것으로는 병든 사람은 물론이요 건강한 사람도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다고 믿게 만듭니다. 또 수도원 내에서 병자들은 전혀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돈을 감추어 두지 않으면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탐욕은 수도사에게 주어진 일과 수도원장의 엄격함 때문에 수도사가 수도원에 오랫동안 머물 수 없을 것이라고 설득합니다. 탐욕이 이러한 생각들을 사용하여 수도사로 하여금 돈을 감추어 두려는 생각을 품게 하려 할 때, 수도원장은 은밀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수공예를 배우라고 설득합니다. 그 다음에는 불쌍한 수도사를 미혹하여 은밀한 기대를 품게 하며, 그가 자신의 수공예를 사용하여 무엇을 벌어들일 것인지, 그 결과 얼마나 안락하고 안전하게 될 것인지 상상하게 만듭니다. 이제 소득에 대한 생각에 완전히 몰두하게 된 수도사는 자신을 공격하는 악한 정념들에게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 불같이 격분하며, 바라던 대로 소득을 얻지 못했을 때에 낙담하고 침울해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위(胃)가 신이듯이, 그에게는 돈이 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탐욕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라고도 말합니다(골3:5).

이 탐욕이라는 병마가 수도사를 나쁜 길로 이끌어 우상숭배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황금에 찍힌 인간들의 형상에 지성을 고정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생각 때문에 퇴보의 길에 들어선 수도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는 안절부절못하고 성을 잘 내며 매사에 불평을 합니다. 그는 말대꾸를

하며, 존경심을 상실했기 때문에 마치 고집 세고 말을 듣지 않는 말처럼 행동합니다. 그는 매일 주어지는 음식의 양에 만족하지 못하며, 그러한 상황을 영원히 견뎌낼 수는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나 그의 구원의 가능성은 수도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수도원을 떠나지 않으면 자신이 멸망할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는 교만하고 거칠게 자신에게 명해진 일을 거부합니다. 그로 자신이 수도원에서는 나그네요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고서 수도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비방할 뿐, 수도원 내에 고쳐야 할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유 없이 경솔하게 수도원을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성낼 구실을 찾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죄악된 행위에 공범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험담이나 한담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유혹하여 함께 수도원을 떠나는 일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탐욕스러운 수도사는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려는 욕망으로 불타기 때문에, 수도원 내에서, 또는 규칙 아래서는 결코 평화롭게 살지 못할 것입니다. 마귀는 늑대처럼 그를 양우리에서 잡아채 삼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로 하여금 밤낮 수실에서 정해진 수도원 내에서의 일과와 행해야 하는 것을 불평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그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 규정대로 금식하고 철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를 탐욕으로 굳게 묶어 놓고서, 수공예에 전력을 기울이라고 설득합니다.

탐욕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성경과 교부들은 그것들 모두를 정죄합니다. 첫째 형태는 가난한 사람들을 부추겨 세상에서 자신에게 부족한 물건을 획득하여 저축하게 합니다. 둘째 형태는 세상의 재물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후회하면서 다시 재물을 찾게 만듭니다. 세번째 형태는 수도사로 하여금 처음부터 믿음과 열심이 부족하게 만들어, 세상의 물건들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지 못하게 하며, 내면에 가난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며, 그가 세상을 부인하면서 행한 약속을 파기하게 만듭니다.(계속)

—중세 초기의 수도사인 존 카시안의 글입니다. 수도사들과 수도원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이런 사정은 오늘 우리의 삶의 정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탐욕이야말로 우리 영혼의 불치병입니다.

■ 마/음/으/로/위/는/글

때로는 멀리 있음으로 오히려 가까워지고

오후에는 엽서를 많이 썼다. 엽서를 쓰면서 내 엽서를 받을 모든 친구들에게 깊은 사랑을 느꼈다. 내 마음은 감사와 애정으로 충만했다. 내 친구들을 일일이 끌어안고 그들이 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으며 내가 그들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말해줄 수 있다면 좋으련만.

때로는 멀리 있음으로 오히려 가까워지고, 부채를 통해 임재를 느끼며, 고독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 아닐까! 몸과 마음과 영혼, 내 전존재가 아무런 조건도 두려움도 제약도 없이 사랑하고 사랑 받고 싶은 심정이었다.

어쩌자고 나는 사랑이 아닐 것을 단 한번이라도 생각하거나 말해야 한단 말인가? 어쩌자고 원한을 품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의심을 품고 행동해야 한단 말인가? 항상 주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힘이 돼주고 감사하고 칭찬하면 안 된단 말인가? 왜 안 된단 말인가?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영원을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영안을 통해 보여주신 진리를 굳게 붙잡고 그 비전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한다.

-헨리 나우웬, <<안식의 여정>> 중에서

믿음은 불신에서 멀리 있지 않으며,
사랑은 미움에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희망은 의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으며,
기쁨은 항상 눈물 곁에 있습니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원로목사 : 박정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최인환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찬양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운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금 영수기 ◇

십일조헌금:

김춘려 이한림 김중수 이순정 백승민 유명숙 이봉옥 배삼순 정완수
 김재광 배삼순 임 영 정경례 김혜권 이예정 박창운 허정윤 왕성환
 강순배 박재실

월정헌금:

이지훈 정미경 문복순 최윤희 김수연 이광섭 고숙이 이갑재 전영자
 홍복선 류건형 문홍일

감사헌금:

방문성 박혜경 방정자 문금석 유명남 전나래 곽동기 유형준 김현미
 배근수 김금순 오진훈 노순옥 문복순 전시내 전다니엘 최윤희 임창선
 김일랑 이은옥 김중수

생일감사헌금: 박정오 고은숙 정미경 정채인

100주년 기념 사업 헌금: (누계- 8,570,000원)

◇ 속회 보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박 영 희	김 정 섭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배 부 례	박 흥 업
안 디 옥	임 정 자	이 춘 희	이 소 순	정 진 경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김 명 순	박 경 선
갈 릴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박 옥 순	안 정 숙
베 다 니	박 흥 재	곽 권 희	김 순 복	백 묘 현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박 효 선	임 미 심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최 숙 화	권 미 정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숙	오 복 순	이 순 정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이 명 희	안 길 상
가 버 나 움	구 명 자	안 흥 숙	오 현 정	박 찬 정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교 회	정 옥 영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박 옥 식	김 수 진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배 삼 순	유 혜 경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최 영 혜	박 수 경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임원회** : 예배 후 교육관에서 10월 정기 임원회가 열립니다.
2. **인사구역회** : 김준우 목사 소속에 관련한 인사구역회가 임원회 이후에 열립니다.
3. **종교개혁기념주일** : 다음 주일(29일)은 종교개혁 489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오후 집회는 김준우 박사의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4. **추수감사주일** : 우리 교회의 추수감사주일은 11월 5일입니다. 이제부터 살아온 날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5. **봉사자 위로회** : 속장·인도자들과 봉사자들이 하루 나들이를 떠납니다. 23일 오전 8시 30분에 교회에서 떠나 문경새재를 산보하고 오겠습니다.
6. **강연** : 감리교 신학대학의 영성신학 연구소가 주관하는 세미나가 10월 26일(목) 오후 5시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열립니다. 카리스마타 수도원의 압바이신 박효섭 목사님께서 ‘예수기도’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7. **신앙실천** : 평화의 순례자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약하고 여린 것들에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생태학적 감수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 식당 봉사 : 베다니 속

* 헌화 : 고사일 집사 최영선 집사 (결혼 기념일)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